

남원시, 국가대표 문화관광도시 우뚝

제1회 'K-브랜드 어워즈' 문화관광분야 대표도시 선정
춘향제 인기·체육대회 개최
각종 축제·국제행사 관광객 유치



남원시 이순택(오른쪽) 부시장이 K-도시 문화관광분야 대표도시상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TV조선의 'K-브랜드 어워즈'에서 문화관광분야 국내 대표도시로 인정받으며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남원시는 최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24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K-도시 문화관광분야 대표도시에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K-브랜드 및 K-콘텐츠 부분 각 8개 분야 중 차서류심사사과 2차 국민투표, 3차 심사위원단 평가과정을 거쳐 수상대상이 선정됐고 남원시는 K-브랜드 부문 K-도시(지자체) '문화관광분야'의 대표도시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남원시가 추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은 어느 해 보다 크게 빛났다.

한국 전통의 봄축제인 '춘향제'에는 지난해 93회를 맞아 4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더불어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 문화제이행 ▲K-명승 달빛유화야간관람 ▲남원 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 축제가 동시 집약 개최돼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30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남원의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 1호 지정 등

은 남원의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브랜드화로 이어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중 개최된 체육대회 열기도 문화관광도시 남원을 뜨겁게 달궜다.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4개, 시장기대회 23개, 장애인체육대회 4개 등 지난 한 해 총 54개 대회를 개최하는 저력을 발휘했고 선수 및 관계자들만의 체육행사를 넘어 동호인과 관람객들까지 함께 즐기는 지역 문화·관광 상품으로 연계 발전시켰다.

남원시는 최근 도시브랜드 최초로 지역 출신 예술가인 김병중 화백의 작품 '화홍산수'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피어남을 표현하는 '피어나다 남원'이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

기도 했다. 남원시는 민선 8기 1300년의 유구한 문화역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K-명승의 대표주자 광한루원의 도심권 관광동선을 합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통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선진 사례를 경험하고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전했다"면서 "그 결과 국내 최초 세계드론제전과 남원의 특색있는 가을축제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거뒀고 '문화관광도시'라는 k-브랜드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제조업 취업 전입자에 매월 정착금

5만원 씩 2년간 가족 동반 뎀 10만원...기업엔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남원시가 지역의 제조업종에 취업하는 전입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전입 정착금'을 2년 동안 지급한다. 남원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고 취업한 지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가족을 동반하면 월 10만원을 준다. 시는 이와 함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임차비를

지원한다. 임차비의 80% 이내에서 1실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준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농공·산단지 설 연휴 환경오염 단속

다음달 1일~15일...폐수 무단방류·악취 등

정읍시가 설 연휴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1일부터 15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순찰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등으로, 해당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 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소·지역 중심 감시·순찰 강화 및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 특별점

검, 설 연휴 중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 위탁업체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소와 사료제조업체 등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백근대 정읍시 환경정책과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동리시네마서 개봉 영화 무료로 보세요"

고창문화관광재단, 31일~다음달 4일 '노랑 죽음의 바다' 등 6편

고창문화관광재단이 동리시네마 운영하게 된 것을 기념해 군민들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이벤트를 마련했다.

고창문화재단은 '노랑 죽음의 바다', '외계+인 2부', '시민혁명', '길위에 김대중', '영가', '인투 더 월드' 등 상영 영화 6편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관람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현장 발권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착순 1인 2매의 티켓을 제공한다.

6편의 영화 상영시간은 동리시네마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영화시간표를 참조하면 되고 어린이 영화 '인투 더 월드'는 단체관람도 가능하다. 현장발권 시 고창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벤트관람권을 받아 가면 되고 지정좌석을 운영하지 않으며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고창군이 관계인구 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며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는 '사이버 고창군민'도 영화 무료관람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아산면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 됐다

고려 청자 초기 가마터 체계적 관리·교육의 장 활용



고창군의 '역사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아산면 '용계리 청자요지'.

고창군이 '용계리 청자요지'를 군의 역사공원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유적지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의 체계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아산면 용계리 청자요지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자로 군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적 제345호 용계리 청자요지는 고려시대 청자 발생기의 초기 청자를 생산하였던 가마터다.

가마와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갑발(匣鉢)과 가마벽체, 청자 등이 폐기된 형성된 퇴적구릉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역사공원 결정·고시를 계기로 체계적인 보존·관리는 물론 지역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2032년까지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에 도자전시관, 체험공방, 도자마을 재현, 주차

장 등이 들어서는 조성사업을 계획해 추진할 방침이다. 역사보존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편의와 휴식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다음달 16일까지 기부·SNS 구독 인증하면 문화상품권 추첨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기부·채널구독을 인증하면 총 10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2월22일 정읍시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2월16일까지며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해

택으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공제, 초과분은 16.5%공제) ▲엄선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설 명절 이벤트를 통해 고향의 큰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참여와 기부로 뜻 깊은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